



'전일 245'에서 열리고 있는 '전일방송대학교가요제' 기획전에서 만난 3회 대상 수상자 '빙빙빙'의 하성관씨.

# '모모' '빙빙빙' ... 전일대학교가요제를 아시나요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바늘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귀에 익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1979년 제1회 전일대학교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김만준 곡 '모모'다. 전일대학교가요제는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의 전일방송(VOC)이 아쉽게 출범시킨 가요제로 당시 큰 인기를 모았다.

'모모'가 들려오는 곳은 전일방송이 자리했던 '전일 245' 4층 전일생활문화센터 로비다. 이곳에서는 다음달 18일까지 전일대학교가요제 전시회가 열리는 중이다. 당시 제작된 수상자 음반, 경연 모습 등이 담긴 사진과 함께 노래도 들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추억의 그 시절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다.

1971년 개국한 전일방송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단행된 언론 통폐합으로 1980년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MBC대학교가요제가 열렸던 1977년 이듬해 열린 전일대학교가요제는 지방 유일의 전국 단위 대학교가요제였고 당시 청년문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가요제는 단 3회 열렸지만 대상 수상곡들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모모'는 조선대 공대생이었던 김만준씨가 예닐곱 아자르의 소설 '자기 앞의 생'을 토대로 작사했고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박정홍씨가 작곡했다. 김 씨는 소설 속 등장인물인 모모를 주인공 삼아 고 3 때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로 표현했다.

2회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자인 김종률 세종문화재단 대표가 작곡하고 부른 '소나기'가 대상을 차지했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곡으로 김 씨는 같은 해 MBC 대학교가요제에서 '영랑과 강진'으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장에서 우연히 반가운 인물을 만났다. 1980년 3회 대상 수상자인 '빙빙빙' (김유성 작사·작곡)의 하성관(61)씨다. 전시 소식을 듣고 잠시 전시장에 들른 그는 "전일대학교가요제를 통해 노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조선대 사범대 미술학과 3학년이었던 하 씨는 전 해 대회에 출전해 입상에 그쳤다. '분한 마음'에 다시 도전한 그는 결국 대상을 거머쥐었다. 그는 5월 18일 서울 지구레코드로 녹음 작업을 하러 가는 길이었을 때만 광주에 내려오지 못했다.

"지역방송이기는 했지만 청취율에서 타 방송국이 따라오지 못했다. 방송국이 있던 전일빌딩을 내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전일대학교가요제는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



제3회 전일대학교가요제 사회자 최경천·윤경화·아나운서.

**'전일빌딩 245' 생활문화센터**  
**9월 18일까지 전일대학교가요제 전시회**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의 '전일방송'**  
**광주 로컬리즘 '전일가요제' 부활 꿈꾸**  
**대상 하성관씨 "가요제로 가수 꿈 키워"**

하고 싶어하는 행사였죠. 대상을 수상하고 나니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프로에 제 노래가 나와서 엄청 유명했죠. (웃음). 사람들이 다 제 노래를 알려주어요. 방송국이 없어졌을 때는 너무 아쉬웠죠." 전일대학교가요제는 하 씨의 인생을 바꿨다. 대상을 받고 오아시스에서 독집 앨범을 내며 가수로의 꿈을 꾸었고, 23년간 서울 미사리 무대 등에 섰다. 10여년 전 광주로 내려온 후에는 풍암동에 라이브 카페 '빙빙빙'을 열고 노래를 불렀다. 지금은 식도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광주시 동구청과 광주동구행복재단은 전일생활문화센터 일부를 광주의 대중음악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다. 이번 기획전은 40년간 DJ로 활동했던 센터 소속 문화기획자 주광(한국방송DJ협회 이사)씨가 꾸린 전시로 광주 음악의 태지라라 할 수 있는 전일방송의 장소성을 살려 '광주 대중음악의 산실'로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는 전일방송이 지속됐다면, 광주의 로컬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년 11월 30일 마지막 방송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인기 프로였던 '팝송 다이얼'의 윤경화 아나운서가 울면서 마지막 곡으로 비즈스의 '트레지디(Tragedy)'를 들려주던 현장은 테이프도 녹음해 두었다.

"전일방송이 사라지면서 광주의 로컬리즘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일대학교가요제와 전일방송의 음악프로의 의미를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전시를 기획했어요. 광주 포크음악의 초석을 놓았고 많은 이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씻어줬었죠. 이번 전시는 미흡하기는 하지만 우선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일생활문화센터는 9월 중 하성관·김종률을 비롯한 입상자와 최경천 아나운서 등이 참여하는 인문학 콘서트를 기획중이며 범위를 확장해 '광주음악'을 주제로 다음 전시도 준비 중이다. 또 포크와 그룹사운드를 대상으로 한 '전일가요제'의 부활도 꿈꾸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광주'를 소재로 작업한 대중가요를 소개하고 살펴보는 광주대중음악역사관 운영 등도 고려 중이다.

인터뷰 사진을 찍는 동안 노래가 흘러나왔다. "빙빙빙 돌아라 내 팬이야, 빨강 노랑 줄무늬의 오색의 내 팬이야" 젊은 하성관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다. 문의 062-225-4245.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 이처럼 판소리로 만나는 '노인과 바다'

21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소리꾼 이자람(사진)이 광주를 찾는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은 기획공연 포커스 다섯번째 시리즈로 판소리 '노인과 바다'를 선보인다. 21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 작품은 2015년 제6회 두산연강예술상 공연부문 수상자 이자람의 신작이다. 두산연강예술상 수상 시 "이자람은 우리 공연예술계에 드문 재주꾼이다. 그의 행보에는 문학적 안목과 예술적 재능을 넘어 세상을 보는 자기만의 시선이 있다. 이자람은 우리 공연예술계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해명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번 작품에서 이 씨는 자신만의 판소리 만들기에 집중해 오롯이 소리만으로 무대를 채운다. 또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을 넘어 파도가 되기도 하고, 바닷 속 생물이 되어보는 등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DAC Artist 양승프로젝트 박지혜가 연출하고, 여신동이 시노그래퍼로 참여한다.

이 씨는 '사천가', '역척가',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판소리 창작자다. 희곡이나 근현대 소설을 판소리의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콘텐츠회 하는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관객석은 50% 미만으로 운영하며 티켓은 전석 3만 원이다.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23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그리지 못한 그림'

조선대 한국화 전공 '선묵회' 23일까지 광주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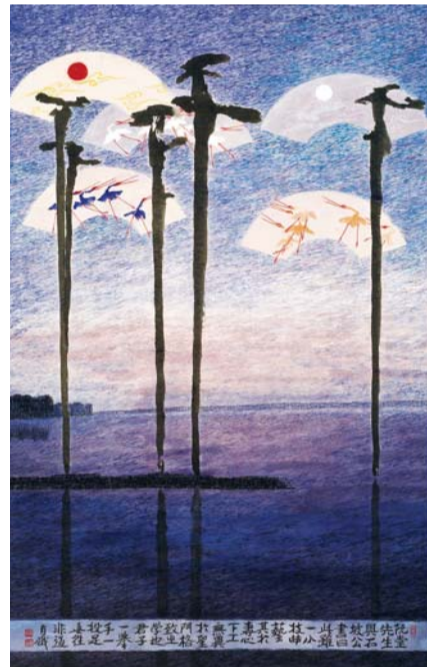
광주문화예술회관 작가 지원 공모전은 지역 미술 현장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와 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화 그림 '선묵회'가 선정돼 전시회를 오는 23일까지 갖는다.

'선묵회'는 조선대 미술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동문들이 결성한 단체로 지난 1987년 창립 후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는 등 작품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다. 현대사회 속에서 전통미술인 한국화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미래적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다.

'그리지 못한 그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70대 작가부터 20대 청년작가까지 참여해 한국화의 다채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전시는 '전통과 계승 그리고 발전'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전통 한국화의 기법과 매개로 창작된 작품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실험적인 현대 한국화 작품들을 전시한다.

전시에는 조선대에서 오랫동안 후학을



양계남 작 '달과 태양을 노래함'

을 가르쳤던 양계남 작가를 비롯해 한민정·송영하·박환숙·박홍수 등의 회원이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게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